

‘202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중기중앙회, 지역별 중소기업 대표·국회 등 각계 주요인사 초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Z홀에서 전국의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단체, 정부·국회 등 각계 주요인사 400여명을 초청해 ‘202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시간을 갖고, 참석자들은 모두 근조 리본을 착용하는 등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인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다짐하고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과 함께 한 해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소기업계 신년하례의 장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중소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 역할을 맡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다.

경제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비롯해 금융지주 회장, 언론사 대표,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영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민수 국제청장 △임기근 조남청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중소기업 유관기관장, 주한 대사(아랍에미리트, 오만, 베트남)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송언석 기획재정부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권

칠승 의원 △김성환 의원 △오세희 의원 △정진욱 의원 △곽상언 의원 △김동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사자성어로 선포한 ‘인내외양(忍耐外揚)’을 소개하며, “인내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만큼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이지만,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요즘 정치 혼란과 이념 갈등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상황은 한겨울 날씨보다 힘들고 더 어렵다”며 “국회는 경제와 민생입법에 매진해 주고 정부는 혼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펼쳐달라며 우리 경제인들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마을기업 전문교육을 진행하며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위해 하나된 응원과 의지를 다졌다.

경진원, ‘마을기업 전문교육’

기업의 전문성 강화·기업 운영에 실질 도움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지난 2일 도내 마을기업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마을기업 전문교육은 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교육이다. 이번 1차 교육에서는 조직내 갈등관리와 비즈니스 매너 및 고객관리(CS)를 주제로 다양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교육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염원하는 세레모니도 진행됐다. 이 세레모니는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향한 염원을 결집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하나된 응원과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우리도와 도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겨울철 과수 궤양 제거, 과수화상병 확산 막는 ‘첫 단추’

농진청, 궤양 제거로 사과 ‘부란병’·배 ‘줄기마름병’ 등 방제 효과도 있어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11~3월) 과수 궤양 제거 작업을 빠짐없이 실시해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과 확산 억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식물체 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18~21℃)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에 궤양을 철저히 제거해야 봄철 과수화상병 대발생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 의무 사항이므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궤양이 발견되면 예방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



겨울철 과수 궤양은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 일부분이 검게 또는 짙은 갈색으로 변해있거나 갈라지고 터진 것처럼 보인다.

육안 식별이 어렵다면 보조적 수단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궤양 증상을 촬영해 앱에 올리면 사진을 분석해 과수화상병 궤양 가능성을 백분율로 보여준다.

궤양과 가까운 건전한 부위의 표피를 벗겨내 1~2분 이내 갈색으로 변하면 과수화상병 가능성이 높다.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 병해충 발생 신고 대표번호(1833-8572)로 신고한다.

궤양 증상이 있는 곳에서 40~70cm 이상 떨어진 부위를 절단한다.

/김옥기 기자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설명회 개최

7일부터 14일까지 구·시·군 선관위별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 입후보설명회를 1월 7일부터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

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1월 7일 완산, 익산, 장수 △1월 8일 정읍, 완주 △1월 9일 덕진, 군산 △1월 10일 남원, 김제, 진안, 무주, 고창, 부안 △1월 14일 순창 순으로 개최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각종 제한·금

지행위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동시 이사장선거는 새마을금고에서 선관위에 위탁하여 치르는 첫 선거로 개정된 위탁선거법을 적용받아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원 선임 등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1월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31일로 나흘 연장

올해 1월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나흘 연장된다.

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1월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27일에서 31일로 늦출 예정이다.

이는 세무사회가 지난해 12월24일 “연휴 종료 후 다음날인 1월31일로 연장에 달다”고 공식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뉴시스

“금융 체험하고 새해선물 받아가자”

전북은행 JB플랫폼, 1월 한 달간 개인 체험자 대상 특별 굿즈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운영하는 금융에듀테인먼트 JB플랫폼에서는 개인 체험자를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특별 굿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JB플랫폼에서 디지털 금융교육 체험 후 디지털 수료증을 직접 발급 완료하면 특별 제작한 JB플랫폼 캐릭터 상품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도내 청소년들의 디지털 금융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과 다양한 금융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JB플랫폼은 도내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디지털 금융교육 체험을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금융교육의 선도



주자로 나아가고 있다.

체험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청소년으로 평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진행되며 각 회차 당 15명씩 운영된다. 체험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JB플랫폼 홈페이지와 전북은행 사회공헌홍보부(063-250-7465, 7405)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